

다산포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비 내리는 저녁 무렵, 서울 모래내 균처의 버스 정류장 앞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사서 맛있게 먹고 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슬프게 한다. 허름한 작업복에 찌든 얼굴 표정으로 보아 아마 어느 막노동장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하면서 붕어빵으로 저녁을 때우는 것 같았다. 집에 가면 반겨줄 가족이 있는지, 아니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면서 적어도 먹고 사는 것만큼은 걱정이 없는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못마땅하다. 그

렇다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대책 없는 생각이 또 나를 슬프게 한다.

지방세 3017만 원을 3년째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는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며 아직도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윤교사관학교 발전 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내었고, 최근엔 호화골프를 친 후 한 병에 165만원 하는 양주를 마시며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 임기를 끝내고 국민의 환호 속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으려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린이 학원의 차량사고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해 11월, 청주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음악학원 차량 문짝에 웃이 끼어 끌려가다가 사망했고, 올해 2월에는 경남 청원에서 일곱 살 난 남자 어린이가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역시 웃자락이 끼어 5m를 끌려가다

가 주차된 1t 화물차에 부딪혀 숨졌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곱고 씩씩하게 자라기 바라면서 음악학원, 태권도 도장에 보냈던 텐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활짝 꽂 피우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 저세상으로 간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일본은 아베 총리의 궤변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정치가 아닌 역사가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는 “줄기차게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에 앞서 한심하고 가련한 생각이 든다. 솔직하고 멋지하게 침략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일본의 국익에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1970년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에 현화한 후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으로써 오히려 독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던가? 콜 총리도 1987년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거나 숨기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슈뢰더 총리는 2004년에 “독일인들은 나치의 범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움 속에서 몸을 수그린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도 놓지 않았다. 일본은 겸허하게 과거사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죽발이’, ‘왜놈’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광수 교수. 자신이 쓴 저서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리포트와 함께 제출해야 학점을 주겠다고 선언한 마 교수는 우리를 뜯마땅하게 하기 하지만, 마 교수의 말대로 “커피 마시고 영화 보는 돈은 아깝지 않게 쓰면서 교재를 사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풍조도 우리를 뜯시 못마땅하게 한다.

2013년 상반기의 우리 사회에는 아래저래 우리를 슬프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기고

빛고을의 짜릿한 상상을 더하자



문용운
광주시 흰경생태국장

도시는 생명의 공간이다. 광주 공동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산다. 광주전에 연어가 팔딱팔딱 뛰어오른다면 그것은 바다와 연결된 영상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이 행복하면 세계는 연어처럼 광주를 다시 찾는다.

‘국정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1%라고 한다. 사실상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도시에서 생을 마감하는 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세이다. 건강하고 안정된 도시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며, 시민들의 생활이 편

하고 쾌적하게 이뤄질 수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도시공간이야말로 현재 이 땅에서 숨 쉬는 모두의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자손들의 것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균형 잡힌 건강성이 중요하다. 광주 공동체는 숲을 가꾸고 공기를 정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는 최근에 숲과 물이 어우러져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청정도시 조성과 2015년 그루 나무심기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녹화사업의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좀 더 새롭게 바뀌기는 광주를 상상하여 보면 재발견되는 광주를 느끼고 경험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광주에서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 직업, 가치관 등에 따라 광주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각자의 이미지를 갖는다. 이는 광주에서 생활하는 시민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로 잠깐의 여행에서도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미국의 ‘케빈린치’는 그의 저서 ‘도시의 이미지’에서 통로, 랜드 마크, 가장자리, 결

점점, 지역을 도시의 이미지 기준으로 삼았다. 광주 8경과 5미가 광주의 도시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의 발전은 도시의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살아가게 하는 터전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빛고을 광주를 찾은 순님들의 머릿속에 새겨져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어 주는 콘텐츠도 필요하다. 세계인에게 문화와 삶의 공간인 광주에 대한 입체적인 체험으로 행복감을 불어 넣어야만, 회귀하는 연여처럼 광주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 상공에서 8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실버관광시대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도시 전략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광주는 지역 흔을 담아내는 남다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광주의 근대를 참고하고 연구해 창조적인 문화·생태·역사·경제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광주라는 땅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광주의 도시역사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조화롭고 행복한 창조 도시 조성을 확신한다.

기고

중국 심천을 다녀와서



정종원
광양만권경제지구역청 해외유치부장

1978년 12월, 덩샤오핑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면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대내적인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전면화했다.

과거 10년간의 문화혁명으로 대다수 중국인의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경제부흥이 절실했고 1960년대의 경제개혁으로 신 흥공업으로부터 발전한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자극을 받은 중국정부는 공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개혁개방의 실용주의로 돌아서 오늘날의 사회주의시장경제론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덩샤오핑은 1979년 4월, 중국 내 최초로 광동성의 주해, 산수, 복건성의 하문과 더불어 심천을 경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심천(Shenzhen)은 홍콩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남중국해 연안을 따라 있다. 1979년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단지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올 때 관세가 면제되는 조그만 국경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특구 지정 후 1980년대에 들어 신흥도시인 심천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도로·주택·학교·수력발전소·교통시설 등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홍콩을 방문한 여행객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곳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임금과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이 성공함에 따라 연안의 10여 개 도시들을 경제특구로 전환시켰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 도시인 심천의 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된 ‘2013 중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지난 6월 21일 참석했다.

관광개발, 제조, 금융 분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박람회 기간 중 광양경제청은 약 100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와 개별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중국 기업들의 광양만권 투자를 위한 교육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심천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내 전자기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전자기술유한회사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3월 말까지 중국의 한국 내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8126건, 45억 불을 기록하였다. 비록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에는 높이고 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중 정상의 유대와 신뢰를 깊게 하고

에서 주차하는 습관을 이브 카탈레의 말처럼 500m는 걸어가서 일은 보는 생활을 해보자.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이 주로 승용차 이용에서 대중교통이용과 자전거이용 그리고 걷기 운동으로 바꿔 나가야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 개선운동이 실천되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적 사고로 생활할 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투자 또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차량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는 생각이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야 하고, 한곳으로 많이 모이면 넘쳐나서 서서히 빠져나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단지 하드웨어적인 고나 지하도 주차장 확보 등으로는 결코 해결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뿐이다.

정보력이나 출퇴근 시간대의 관찰력을 발휘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에 업무 등을 보려고 할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자전거이용이나 도보로 건강도챙기며 마음속에서는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지구온난화도 늦춰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본다.

▲김덕중·광주시 남구 송하동

교통체증 탓만 말고 500m는 걸어다닙시다

요즘 오락가락 날씨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기상예보를 보고 자가용 이용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가용차량운전자가 교통체증구간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올 여름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도챙기며 CO₂도 줄이는데 일조해보자.

지자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통체증구간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고가설치, 지하도설치, 버스

에서 주차하는 습관을 이브 카탈레의 말처럼 500m는 걸어가서 일은 보는 생활을 해보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집중호우 피해 키운 당국의 안이한 대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시간당 최고 50mm 가량의 ‘불 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농경지와 상가밀집 지역·염전 등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장마는 예정돼 있었지만 늦잠 공사와 부실한 기상 예보, 차단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지난 5일 밤 9시께 나주시 산포면 김모씨의 닭 사육장 2동과 이모씨의 돼지 축사 등 3동이 침수됐다. 이곳은 나주혁신도시 토지 보상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겪으면서 일부 구간만 우수로 공사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엔 광주시 남구 월동 한일병원 인근 마트·노래방·식당 등 상가 7곳이 물에 잠겼다. 이 지역은 하수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지만 공정률이 25%에 그쳐 빗물이 역류하면서 침수사태를 빚었다. 신안군 일대 염전도 폭우로 우수로 차단체가 넓히지 않고 방지해 오다 침수를 불렀다.

기상청의 부실한 예보 역시 한몫을 했다. 기상청은 4일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60~150mm, 곳에 따라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나 대부분 지역에 200mm가 훨씬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불안에 떨거나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는 잦은 기상 이변으로 예측 불허의 대형재앙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8월과 9월, 광주·전남에는 ‘불라벤’과 ‘렌빈’, ‘산바’ 등 3개의 태풍이 몰아닥쳐 벼와 과수단지, 수산 양식장 등지를 초토화시켰다.

자연재해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인재(人災)까지 겹친다면 더 큰 화는 불가피해진다. 각 차단체는 물 폭탄과 태풍이 겹두에 두고 공사현장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죽대 등 위험지구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완벽한 대비만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존재하나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지방이었던 60대 수감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사망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대가 겪은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광주교도소가 이 수감자의 사망 직전 응급처치를 제때 했는가 하는 점과 사안에 비해 과하다 싶은 사법부의 처벌수위 때문이다.

광주교도소에서 병사한 정모(65)씨는 보증을 잘못 서 탄인에게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철쭉을 갈아엎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사법부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병사한 60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에겐 법도 불의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의 공명정대함을 실증할 사법당국의 책임이 두렵다.

앞서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일이나 사안이 법정구속까지 해야 할 일이었나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얼마 전 살인 교사협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의 회장 부인이 병원 호화 특실에서 기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었다. 이 두 사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가진자에게는 관대하나 없는자에게는 가혹하다는 사실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참담한 단면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사법부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병사한 60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에겐 법도 불의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의 공명정대함을 실증할 사법당국의 책임이 두렵다.

無等鼓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니 깨닫습니다.”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업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런